
공공디자인의 탄생과 전개

The Birth and Flourish of Public Design

오창섭

Oh Changsup

건국대학교 교수 Professor, Konkuk University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3년 1월 15-3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31일
Received Date 31 Dec, 2022 / Reviewed Date 15-31 Jan, 2023 / Accepted Date 31 Jan, 2023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PP.096-101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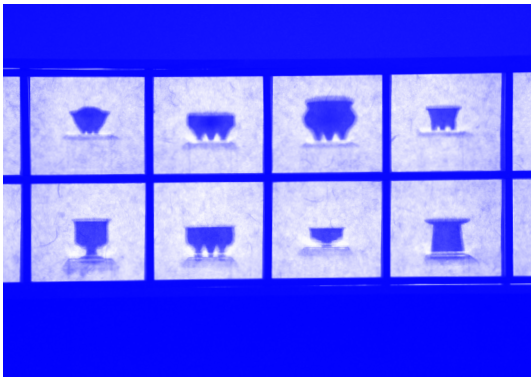
2005년, 혹은 2006년에 공공디자인이 탄생한 것일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2000년대 후반 제도적 차원에서 이야기되었던 공공디자인이 유일한 공공디자인일까? 대안적 공공디자인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가? 오늘날 공공디자인은 어떤 위험에 봉착해 있는가?

Abstract

Was public design born in 2005 or 2006? Was the public design discussed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t institutional levels in the late 2000s the only form of public design? Is there no possibility of alternative public design? What risks does public design face today?



[그림 1] <안녕, 낯선 사람> 전시 전경



[그림 2] <안녕, 낯선 사람> 전시 전경
(사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혜정 촬영)

2017년 11월,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전시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렸다. [그림 1-3] <안녕, 낯선 사람> 전시는 새로운 공공디자인 실천 사례들을 드러냄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이해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공디자인 주체를 호명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획이었다. 간단히 말해 이전까지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내고 있던 것과는 다른 개념과 디자인 실천을 새로운 공공디자인(새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내려 했다.

그런데 <안녕, 낯선 사람> 전시는 유독 '새로움'을 강조했다. 왜 그랬을까? 돌아켜보면 이 전시의 계기가 된 것은 2016년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었다. 당시 법률안의 제정은 다소 뜬금없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이 최고조에 다다른 2000년대 후반을 지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디자인계는 물론이고 대중 사이에서도 공공디자인은 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재를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대와 관심 추락은 그동안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실천들이 관 주도의 하드웨어 사업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추진이 일방적이고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광풍이 지나간 당시 필요했던 것은 그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 없는, 아니 오히려 관이 조성하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개념과 범위가 축소된 공공디자인이 어느 날 느닷없이 법의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로 인해 성찰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볼 새도 없이 이전 공공디자인의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의 <안녕 낯선 사람> 전시는 이런 상황에서 열렸고, 그런 기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그렇다면 당시 <안녕 낯선 사람> 전시가 문제 삼았던 공공디자인, 벗어나고자 했던 공공디자인은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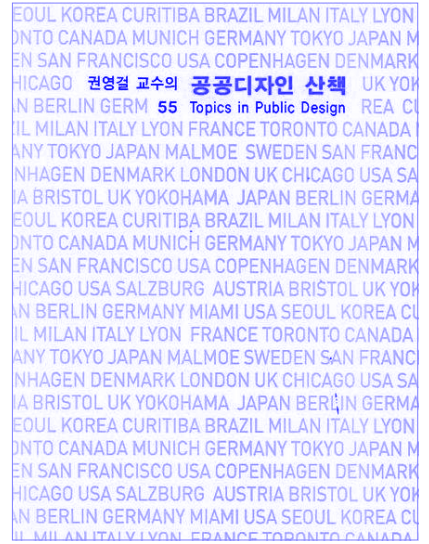


[그림 3] <안녕, 낯선 사람>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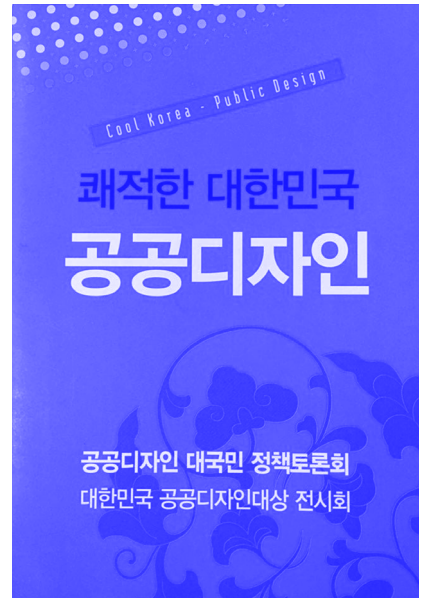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다. 한 마디로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으로,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언제 어떻게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을까? 아마도 200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공공디자인학회 초대 회장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초대 본부장을 지낸 권영걸 역시 자신의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그림 4) 머리글에서 2006년을 “디자인 족보에 없던 ‘공공디자인’이 제도권에 진입한 해”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그는 “2005년 가을, 필자가 ‘공공디자인’을 말하자 디자인계의 전문가들까지도 가우뚱했다. 그것은 관습적인 디자인 영역 분류표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기에 그도 그럴 만했다.”고 말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출발점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묻는다. 정말 2005년, 혹은 2006년에 공공디자인이 탄생한 것일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2000년대 후반 제도적 차원에서 이야기되었던 공공디자인이 유일한 공공디자인일까? 대안적 공공디자인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 오늘날 공공디자인은 어떤 위험에 봉착해 있는가? ④



[그림 4]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그림 5] 공공디자인 대국민 정책 토론회 포스터



[그림 6]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2002,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